

● 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전력산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산·학·연 등 전력산업계 실무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기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과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을 위해 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들을 소개했으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4년 주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의견수렴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기술 기준과 적용 사례 ▲전기설비기술기준 최근 질의 회신 사례 ▲KEC 제정 현황 및 활용 방안 ▲KEC 고압전기 설비 분야(제3편) 제정 현황 ▲KEC에 의한 전기설비 검사 계획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 제정 및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 등 각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위한 종합토론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9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62조 제5항 및 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 KEPIC 정책토론회 열고 내년도 개발계획(안) 확정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9일 섬유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정부,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6단계 5차) KEPIC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창진)'를 열고 내년도 KEPIC 개발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우선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23차(6단계 4차) KEPIC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KEPIC 2014년 추록 개발현황 및 발행계획 ▲KEPIC 제7단계(2016~2020) 계획수립 추진일정 ▲화력분야 KEPIC 적용 확대 추진현황 ▲e-Book 시스템 기반 KEPIC 자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안건이 보고됐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올해 KEPIC의 신규개발은 국·영문 발행체계 유지·확대,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분야 표준개발 확대, 산업계 요구에 부응한 기계·전기계측·화재 분야 요건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 추진됐다.

그 결과 기계, 원자력, 품질/제도, 전기계측, 화재방호 등 5개 기술 분야에서 총 68종(3,863쪽)의 신규표준이 개발되었으며, 기계, 전기계측, 구조, 화재방호, 환경 등 5개 기술 분야에서 총 66종(1,884쪽)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전기협회는 올해 신규개발 완료분(14종 897쪽) 및 개정 완료분(56종 1,626쪽) 등 총 70종 2,523쪽의 추록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어진 의결안건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KEPIC의 신규개발과 국내외 기술동향의 반영을 위한 '2015년 KEPIC 개발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내년도에는 화력발전소 운영단계 표준, 원전 적용 확대를 위한 전기계측 분야 표준 등 총 39종(2,947쪽)의 신규표준 개발과 총 57종(1,976쪽)의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내년도 추록은 KEPIC 제·개정안 초안 작성(4월)을 시작으로 기술 분야별 분과위원회 검토와 전문위원회 승인(10월), 정책위원회 보고(11월)를 거쳐 11월에 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KEPIC 기기검증기술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의결이 이뤄졌다. 이는 KEPIC 기기검증표준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국내 기기검증 기술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기기검증분야 전담 위원회를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 급) 형태로 설치하게 된다.



● 2014년도 표준품셈 제·개정(안) 심의·의결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5일 '2014년도 전기부문 표준품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제·개정 요청사항 ▲분과위원회 검토사항 ▲전문위원회 의결사항 ▲2014년 주요 제·개정 내용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14년도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는 서울시, 한전, 도로공사, 전기공사협회 등에서 총 111건에 대해 제·개정을 요청해 왔으며, 전기협회는 요청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 78건(전문위원회 추가 항목 1건 포함)을 제·개정하고, 34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강관주 기계 건주, 터널내 전력케이블 설치 등 배전분야 4건, 세배분전반 설치, LED 가로등 설치 등 내선 분야 3건 등 총 7건이 제정됐다. 아울러 적용 기준, 송전, 변전, 배전, 내선, 항공동화 등 각 분야에서 71건이 개정됐다. 의결된 표준품셈 제·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KEC 제정 특별위원회 개최 ...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대한전기협회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교)'를 지난달 5일 파크루안(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하고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의를 진행했다.

전기협회는 올해 KEC 제정과 관련해 제1편 공통분야에 대한 구성 체계를 변경하고,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전기협회는 올해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제정된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초안은 총 4부 11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는 '적용범위 등'으로 목적, 적용 범위, 용어정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 '안전보호' 부문은 기본요건, 절연, 안전대책, 접지계통 등 공통요건을 다루고 있다.

제3부 '전기설비의 선정과 시설' 부문은 ▲전선로(일반사향, 구내인입선, 옥측전선로, 옥상전선로,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특고압 가공전선로, 특수장소의 전선로) ▲전기기기(일반요건, 특수요건, 기기설치, 보호/제어 및 보조계통)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일반사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수배전설비 등(적용범위, 수전설비, 배선설계)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4부는 '검증' 부문으로 일반사향, 검증,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협회는 내년 6월까지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에 대한 제정을 완료하고, 이어 7월에는 제1편부터 제4편까지 KEC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8월부터 연말까지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 실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2~14일 사흘 동안 서울청소년수련관(중구 수표동 소재) 세미나실에서 '제4차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해설교육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기술기준 최근 동향 및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현황 ▲내부 피뢰대책 기법 ▲사고사례와 보호협조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설비 기술 등 전기협회와 주요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의 강의로 꾸며졌다.

협회는 이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최신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실무기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EPIC 환경기술 세미나 열고 최신 기술·정보 제공

대한전기협회와 한전산업개발은 지난달 4일 공동으로 '2014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환경기술 세미나'를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환경기술 세미나에서는 환경규제 동향, 환경기술 표준과 관련한 기술, 정보 등의 제공과 함께 현장 기술자들 간의 폭넓은 교류확대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업장 대기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대기오염 방지설비 기술동향 ▲역삼투막 최신 동향 및 전력산업 적용사례 ▲KEPIC 대기분야 표준 및 적용 ▲KEPIC 수처리 분야 표준 및 적용 ▲NOx 발생 및 탈질기술 ▲KEPIC 소음진동 분야 표준 및 적용 ▲고내식·내황산강 개발 ▲보일러 장애 예방을 위한 화학설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내 탈황설비 현황 및 운영 ▲수처리 및 순수생산 기술동향 ▲당진화력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소음/진동기반 상태감시 기술동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 2014 전기연감 발간

대한전기협회는 국내외 전기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지침서인 '2014 전기연감'(통권 50호)을 발간, 전기업계에 배포한다.

전기계 각 해당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집필된 전기연감은 전기계 유일한 총서로서 지난 1년간의 각 분야별 사업현황과 계획, 전망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각종 전력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했으며, 별도의 CD가 함께 보급된다.

총 10편으로 구성된 전기연감은 ▲총론(제1편) ▲전력산업(제2편) ▲원자력발전 산업(제3편) ▲전기기기산업(제4편) ▲연구개발·기술교육(제5편) ▲전자·IT산업(제6편) ▲전기관련 사업(제7편) ▲외국의 전력산업(제8편) 등의 현황과 전망을 심도 있게 담고 있다. 이밖에 편람(제9편), 각종 최신 국내외 전력통계(제10편)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 규 격 : 4×6배판, 1,377면(CD 포함)
- 정 가 : 150,000원 ※ 회원(사)에게는 20% 할인 보급
- 문 의 : 대한전기협회 정보지원팀(전화 : 02-3393-7691~2) 

